



혁명이나 개혁이나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프랑스대혁명(1789.7.14~1794.8.28)은 사상혁명인 동시에 시민혁명이다. 시민혁명은 부르주아 혁명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아를 확립하고 평등과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선 혁명을 뜻한다. 18세기 초 프랑스 왕권은 루이 14세가 완성한 절대주의 체제에 의해 국왕의 친정과 신권이론을 받들고 국가와 인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짐이 곧 국가”라고 선언한 루이 14세의 성명에서 그의 통치이념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혁명이론은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등에 의해 반세기 전부터 이미 배양되고 있었다. 특히 루소의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함께 인민주권이 혁명사상의 기초임을 역설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프랑스는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농민의 삶은 매우 궁핍했으며, 미국독립전쟁에 참전한 군사비

의 지출로 국가의 재정은 고갈상태에 있었다. 어려운 국가재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왕은 1787년 삼부회를 소집했다. 삼부회는 제1신분인 가톨릭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과 제3신분인 평민(부르주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왕은 특권 신분인 성직자와 귀족도 과세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특권층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국왕에게 강력히 반대했다. 성직자와 귀족은 전국 농토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면세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화살의 목표는 평민에게 향했다. 제3신분인 부르주아들은 삼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권층에게 주어진 복수 투표권을 폐지하고 1인 1표제를 국왕에게 요구했으나 왕은 이를 거절했다. 국왕의 처사에 분노한 평민들은 삼부회를 뛰쳐나와 부르주아만으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발족했다. 혁명의 깃발이 나부낀 것이다.

국민의회는 혁명정부를 수립하고 입법의회를



발족해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했다. 국민회의의 혁명강령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투옥된 정치범(반정부 정치인)을 석방하고 무기고를 탈취해 혁명의 불꽃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지방 성주의 성이 모두 점령되었고 국민회의는 특권 폐지를 선언하고 헌법제정을 공포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왕실은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일시적으로 투옥되었으나 후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으로 시작된 시민혁명은 낡은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전복시킨 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부르주아 계층은 온건파(공화정을 반대하고 의회주의와 시민의 소유권을 강조)와 급진파(공화정을 주장하고 급진개혁을 강조)로 양분되어 내전으로 번졌으나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급진파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급진파는 혁명의 적으로 인식된 특권층을 숙청했다. 혁명 1년에 35,000명이 숙청되고 50만 명이 투옥되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러시아혁명은 1905년 제1차 혁명과 1917년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제2차 혁명을 포함한다.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는 혁명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다. 크림전쟁(1853~56)에 패한 러시아는 군사적 후진성이 노출되었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실업자는 늘고 임금은 하락하여 노동자의 반정부운동, 자유주의자들의 입헌운동 등이 거센 상태에서 러-일 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폭발했다. 1905년 1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

동자들이 8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을 요구하며 왕궁을 향해 평화적 시위를 했으나 군인들의 발포로 수백 명이 사살되고 수천 명이 부상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황제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선거에 의한 제헌의회 창설을 약속하고 최초의 민선 의회인 두마(Duma)를 구성했으나 1차 혁명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러시아는 군 장비와 경제력의 한계로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을 재촉하게 되었다. 계속된 동원령, 군수공업의 강화에 따른 생필품의 결핍, 식량과 연료 부족으로 시민의 삶을 압박했으나 니콜라이 2세는 전제를 고집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1917년 3월 두마(국회)는 군의 동의를 받아 황제의 퇴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3월 혁명으로 탄생한 러시아의 임시정부는 전쟁을 계속 강행함에 따라 평화와 생활의 안정을 요구하는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4월 중순 망명지 스위스에서 귀국한 레닌은 “자본주의 타도 없이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라는 등 10개 항에 달하는 4월 테제(April Theses)를 발표했다. 이는 곧 볼셰비키의 방침이 되어 “임시정부 타도”,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라는 구호가 되어 임정에 대항했다. 11월 6일 트로츠키의 군사혁명위원회는 수도를 점령해 볼셰비키의 지배를 성취하고 인민위원회 의장인 레닌을 정부 수반으로 선출해 2차 혁명은 성공했다.

프랑스대혁명과 러시아혁명을 경험한 유럽은 “혁명이냐 개혁이냐”라는 화두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진행을 살펴본 18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많은 인명을 앗아간 참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다. “힘보다는 인내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보수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급진적 변화가 아닌 사회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버크의 정치이념을 배워야 할 것이다. 20세기 폴란드 출신 하버드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리처드 파이프(Richard Pipes)는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을 전통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 파이프 교수는 러시아혁명이 스탈린 체제의 테러와 학살로 이어지게 만든 부정적인 역사의 유산이고 민중의 열망을 무시한 소수의 독재정권을 출

현시켰다고 혹평했다.

한편 혁명에 대한 긍정적 논평도 있다. 이는 1970~80년대에 일어난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즉 러시아혁명은 민중의 지지와 열망에서 시작되어 레닌과 볼셰비키 당의 노력으로 완성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러시아혁명으로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정책과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계급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약자와 피지배자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식이 있는데 그 뒤에는 러시아혁명의 사상적 이념이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KIIF**